

## 농민에게 희망을...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12월은 구세군의 자선냄비로부터 시작된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냄비는 이제 우리 문화에 토착화 되어가고 있다. 각 신문, TV도 12월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구세군의 자선냄비와 다른 점은 오른 손이 한 것을 왼 손이 모르게 하는 자선냄비에 비해 오른 손이 한 것을 온동네에 홍보하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금년 연말은 경기 타인지 장애인, 고아, 양로원 등에 발길도 뜸하다는 보도이고 보면, 일반 기업의 어려움이 큰 것인지 인정이 메말라가는 것인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작년 12월에는 600만 농민이 갑자기 불우이웃이 되었다. 전경련 등 재벌기업들이 불우한 농촌을 돕겠다고 나선 것이다. 아직 돕기도 전에 홍보부터 하는 것을 보면 불우이웃 돕는 방법도 자선냄비, 매스컴의 성금모금에서 선홍보로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 생각된다.

작년 12월은 우리나라 농민에게 잔인한 달이 아닐 수 없었다. 사회주의 종주국 붕괴에 이어 WTO(세계무역기구)시대의 새로운 경제질서 개편에 한국의 농업, 농민이 희망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먹고 사는 동물인데, 희망을 빼앗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가 농업을 경제적 시각에서 접근한 데 큰 과오가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중 독일의 포로수용소에서 새해가 되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많은 포로들이 시름시름 죽어가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다. 성탄절 특사로 석방되리라는 희망이 무너져 삶을 지탱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모든 종교들이 죽은 후에 천국이라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현실의 고통을 견딜 수 있고, '60년대나 '70년대의 경제발전의 원동력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2월에 보도된 기사중 농촌의 27.8%가 노인 혼자 또는 노인 부부가 쓸쓸히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살기 위해 도시로 나간 것이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또 하나의 기사는 농촌 총각은 장가 들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희망이 없는 곳에 시집갈 처녀가 없기 때문이다. 연변교포처녀들까지도 농촌에 살아 보고는 도시로 도망가 버려 농촌 총각을 더욱 애타게 한다.

이번 추곡 수매가는 생산비가 보장된 농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고위 농정 당국자가 TV에서 외쳐대는데도 현실은 농촌에 희망이 없다고 농촌을 떠나가고 있다.

이번 UR협상은 99개를 가진 자가 1개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100개를 채우려는 선진국의 욕심도 밟지만,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세계 교역량 13위의 무역대국으로 UR협상으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홍보하는 데 서글픔을 느낀다. OECD에 가입한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도 아니며, 설사 국민소득이 올라간다 해도 식량의 자급없이 선진국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0년이 지났어도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필리핀, 남미 등 중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후퇴한 예만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쿠웨이트, 사우디 등 국민소득이 세계 최고의 나라들을 아무도 선진국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식량자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업의 치명적 타격과 로얄티, 지적소유권 보호 및 금융시장의 개방 등 선진국에만 절대적으로 유리한데도 우리에게 UR협상타결이 유리

한 방향으로 타결되었다는 발표는 정부를 불신하게 할 뿐이다.

이번 협상이 쌀 개방, 축산물 대폭 양보 등에서 절차상 농민의 불신을 증폭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말았다.

농민에게 희망을 주려면 확신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믿음은 농정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됨은 물론이다.

땅 팔고 농촌을 떠나기 쉽게 농지은행제도를 만들고, 경영과 소유를 분리해서 힘든 농사를 도시 상업자본이 대신하겠다는 정책이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는 없다.

이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서처럼 무한경쟁시대로 가고 있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개편되려 하고 있으며, 시장(市場)의 성격과 내용도 바뀌어 가고 있다.

이제 농민들이 농축산물을 생산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사라짐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농민의 뜻이 아닌 국가 경제, 사회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 우리의 비극이 있다. 공격형농업, 수출농업을 외치지만 구호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1945년 이후 지구상에 새로운 식민지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약소국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이제는 영토 점령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경제식민지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UR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2월 15일까지의 이행계획서 제출과 4월 말까지의 국회비준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먹거리의 식민지가 되지 않도록 남은 4개월을 활용해야 한다. 